

6월부터 지방 공공주택 전매제한 5년→1년으로 단축

광주·전남 미분양 숨통 트이나

업계 “대출 규제 완화·세제 개편도 절실”

오는 6월부터 지방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이 크게 단축돼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전남은 미분양주택 대부분이 광주 수완지구와 목포 옥암지구 등 공공택지에 밀려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매규제 완화에 따라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미분양 해소 등 지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1년으로 크게 줄인다.

이에 따라 지방 공공택지에서 아파

트를 산 사람들은 해당 아파트의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통상 분양에서 입주까지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주 전까지는 전매제한이 완전히 풀리는 것이다.

특히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미분양아파트는 전매로 인한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지방 주택시장이 다소나마 활기를 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매규제 완화로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될 경우 주택경기 활성화에 ‘불씨’를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 등 지방의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전용면적에 따라 각각 5년(85㎡이하), 3년(85㎡초과)간 매매가 제한돼 시장회복에 적잖은 걸림돌이 돼왔다.

또 광주·전남의 경우 미분양주택 가운데 대부분이 공공택지에 쌓여 있다는 점에서도 미분양 해소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총 미분양주택 1만여세대 가운데 수완지구와 하남2지구 등 공공택지에만 7천세대 가량이 몰려있다. 전남도 목포 옥암지구와 무안 남도신도시의 미분양이 2천500여세대에 달하면서 해당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의 필요성이 높게 요구돼 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의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선 이번 전매제한 완화 조치와 함께 주택대출 규제나 세제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지방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원인은 세제나 대출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에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시장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치영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최근 지방시장의 침체 정도를 감안했을 때 전매제한 완화만으로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출 규제와 취득·등록세 등 세제를 대폭 손질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 제도 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소 글로벌경영 약화... 대책 시급

수출 비중·업체 수 감소... ‘글로벌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정책 필요

KIET, 2002~2006년 비교

경영의 글로벌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지난 2002~2006년 수출규모와 비중, 수출기업 수, 수출시장 보유부와 해외투자 등으로 살펴본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은 대부분 지표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683억 달러에서 1천41억 달러로 늘었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에서 32%로 급락했고 3

만538개에 달했던 수출 중소기업은 2만4천690개로 큰 폭 감소했다.

독자적 수출시장을 보유한 제조업체의 비중 역시 18.1%에서 16.3%로 떨어졌고 해외투자건수의 비중도 61.8%에서 48.0%로 위축됐다.

KIET는 ▲글로벌 경영자 역량 ▲경영자원 보유 ▲외부자원 활용 역량 ▲현지사업 역량 ▲현지화속도 및 본사와의 협력역량 등 5개 지표로 2006년 기준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5점 만점)을 분석한 결과 2.21점 수준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글로벌 경영자 역량은 2.4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현지화속도 및 본사와의 협력역량은 2.05점에 불과했다.

KIET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은 ‘글로벌 기반 혁신형 중소기업’을 목표로 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혁신능력의 배양을 연계해 지원책을 펴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인 ‘이노비즈’ 업체 지정시 글로벌 지향성과 해외수요 창출, 확보여부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KIET의 제언이다. /연합뉴스

초고속 인터넷

소비자 불만 1위

작년 1만5천건 접수

200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된 품목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모두 26만3천814건으로 이중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이 1만5천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2006년에도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다.

이 동전화서비스(1만2천428건), 휴대전화(5천152건), 양복세탁(4천776건), 자동차중개(4천754건), 차량 내비게이션(4천706건) 등이 뒤를 이었고 건강보조식품(3천902건), 콘도회원권(3천834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3천759건),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3천731건) 등이 소비자 불만 상위 10대 품목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차량 방역활동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22일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나주와 영암지역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펴본 뒤 영암군 신북 방역초소에서 차량 방역소독기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덕수 전남농협본부장,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강운구 농협영암군지부장, 김일태 영암군수.

(전남농협본부 제공)

‘중소 규제혁신단’ 출범

중기중앙회, 경영 애로사항 등 발굴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및 경영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발굴해 건의하는 ‘중소기업 규제혁신단’을 출범한다고 22일 밝혔

다. 혁신단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단장으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중소기업연구

원 등이 참여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규제혁신단은 그간 중소기업 관련 단체별로 애로사항을 개별 건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했다”며 “현장중심의 규제발굴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출 지원 정책 활용하세요”

광주지역 기업 대상 순회설명회

지경부, 내달 7일 광주 무역회관

지식경제부는 22일 올해 시행될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지방 수출기업에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한 지방 순회 설명회를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수원(22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29일 부산 무역회관), 대구(30일 국제오피스텔), 인천(5월6일 토지공사 인천본부), 광주(7일 광주 무역

회관), 대전(8일 미정), 창원(15일 경남 무역회관)에서 각각 개최된다.

지경부는 아울러 올해 설명회를 기업들이 요청하는 규제완화와 경영애로 해소기회로 활용하기로 하고 시책 설명회와 규제완화를 위한 현장실사를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순회 행사에는 무역협회와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함께 참가해 수출 채산성과 직결되는 환율동향 분석정보와 환변동 보험의 활용방안, 온라인 무역시스템 활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먹을거리 안전정보 ‘한눈에’

‘농식품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소비자에 제공

먹거리의 안전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완성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5년 이후 178억원이 투입된 ‘농식품 안전정보 시스템(www.agros.go.kr)’ 구축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농,축,수산물의 안

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나 관련 기관은 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

농산물의 경우 이 사이트를 통해 100개 품목 3만여 농산물의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1만8천여개 우수농산물인증관리(GAP) 인증 농가에 대한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축산물 역시 도축,도계장에 대한 위해요소잔류관리기준(HACCP) 지정·감독 상황과 도축후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이 사이트는 수산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fishtrace.go.kr)과 연동, 333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김·굴 등 10개 수산 품목의 이력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식별 번호와 바코드를 통해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유통 경로와 검역 검사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무릉산 자락의 푸른보수 맑은 시냇물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며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자연IN

부동산연구소 070-431-6070-2

正統日食

미도

확장계획

일찍이 도미처럼 25년간을 일찍이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미도 확장계획 하에 2008년 10월 10일 개업 예정입니다. 2008년 10월 10일 개업 예정입니다. 2008년 10월 10일 개업 예정입니다.

입성/수입특선

미도정식	21,000원
미도이탈리	13,000원
미도고양이(미도정식+미도이탈리)	15,000원

총단지 50억 가량 (우리는 미도를 만들 것입니다)

070-234-0001